

정치권, 검사 탄핵소추 놓고 갑론을박

박지원 “국민들은 검찰 ‘맞을 짓 했다’고 해”

민주 “檢반발 헌법 위반 정치행위…징계해야”

국힘 “민주당 검찰 탄핵, 정치보복이며 광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은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이라며 검찰을 옹호하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8일 CBS 라디오에서 “방귀 권 사람이 큰소리치는 것”이라며 “검찰은 자체 징계를 안하기 때문에 슬쩍 넘어간다. 국회의 탄핵은 징계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 잭대가 야당과 이재명 대표에겐 엄격한 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처럼 확실한 것엔 핸드폰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수사도 미진한 데 불기소 처분하나”라며 “이 검찰에 대해 국민들은 ‘맞을 짓을 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이날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국회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 행위이자 집단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당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독재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반발은 검찰이 안하무인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행위와 집단 행위를 금지한다”며 “검찰총장은 이들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당장 수사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류성영 당시 총경 등을 징계했다”며 “같은 잣대로 검사들을 징계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칼과 방패가 돼 선택적 수사·기소를 하고도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통과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낮이 뜨겁지 않나”라며 “윤석열 정권의 사건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로펌으로 전락한 현실이 창피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탄핵당할 상황에 처하자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재

명 대표 방탄’ 운운하니 한심하다”며 “민주당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이 민생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보복 탄핵’이자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강박신·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를 두고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모욕주기”라며 “이쯤 되면 민주당은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2심 공소 유지를 방해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 의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자를 수사하는 검찰을 파괴하면 도둑은 누가 잡나. 검찰 없는 범죄자 천국을 만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약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뒤표걸 처리할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尹대통령 “이른둥이 지원 대폭 강화”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의료진 연계 서비스 전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른둥이’ 부모와 만나 이른둥이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으로 미숙아라는 말을 대체해 쓰인다.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kg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이 병원에서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 등 이른둥이 부모, 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 출산이 많이 늘었지만 이른둥이의 중환자실 장기 입원 등으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도 커졌다”면서 “정부는 이른둥이의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 진료를 제공하는 모자 의료센터를 중앙 및 권역에 단계별로 설치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부의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의료기관 간 핫라인으로 연결된 모자 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최대 1천만원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이른둥이 퇴원 후에도 건강 상태와 발달 과정을 계속 확인해 의료진과 연계해 주는 전문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른둥이는 수개월간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다 보니 정작 아기를 집에 데리고 갈 때 지원 시기가 지나거나 알마 남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관련 서비스를 산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

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의료 개혁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를 비롯해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과 같은 고난도 의료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해 의료진에게도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 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그렇게 해서 의료 분야 전반에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나타난 출생아 수 지표 반등세를 평가하며 “출산율 반등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올해 6월 마련한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고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확실하게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상속세 면제’ 촉구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등 16개 시·도지사 성명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기업상속 공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통과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 요구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지난 27일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은 제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통과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 요구했다.”

정부가 발의한 세법 개정안은 기존 기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 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1월1일부터 기업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기업상속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업상속 공제가 확대되면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자리 잡아 국가 전체의 경제력 격차를 줄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에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수 기자

주철현 ‘형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사진)은 28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자체의 적극 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형법’ 개정안과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공익법인

등에 편의시설이나 물품 후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하기 위해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 참여 권유를 위해 투표

소까지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과 투표 참여 권장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기업의 사회공헌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투표를 제고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티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